

본즈 755호 낱!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배리 본즈가 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방문경기에서 0-1로 뒤진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우완 선발투수 클레이 헨슬리를 상대로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통산 755호 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파란색 원내는 타구> /로이터=연합뉴스

학강초 “우리가 왕중왕”

KBO총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우승

광주학강초등학교가 제 4회 KBO 총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왕중왕의 자리에 올랐다.

학강초교 야구부는 지난 4일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4개리그 우승팀이 맞붙는 왕중왕전 결승에서 서울 도곡초교를 9-4로 꺾고 통틀어 우승을 차지했다. 왕중왕전은 대회에 참가한 초등부 4개리그 우승팀끼리 격돌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개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101개팀과 리틀야구팀 34개팀 등 총 135개팀이 모두 참가하는 최초의 유소년 야구대회로, 초등부 4개 리그(백두·한라·동해·서해리), 리틀부 2개 리그로 나뉘어 각각 리그 우승팀을 선발했다. 이 중 초등부는 리그 우승팀끼리 왕중왕전을 벌여 최종 승자를 결정했다.

백두리구를 우승한 학강초교는 이날 도곡초교와의 왕중왕전 결승에서 1회 박규민의 우익수 키를 훌쩍 넘기는 3루타와 박고현의

볼넷을 엮어 1사 1, 3루를 만든 뒤 4번타자 박영진의 1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아냈다. 이어진 2사 1, 2루에서 김현수 타석때 상대 수비 에러로 1점을 더 보았다.

학강초교는 2회에도 타자 일순하며 5점을 추가했고, 4회에는 박영진과 김진휘의 탕대류 솔로포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대한야구협회 관계자는 “전국 초등학교 야구팀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유소년 대회”라면서 “리그 우승팀끼리 맞붙는 왕중왕전의 승자는 곧 한국 유소년 야구팀 중 최강팀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4개리그에서 광주지역 초등학교 3개팀이 1위에 오르는 등 광주 유소년 야구의 명성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백두리구는 학강초교가, 동해리구는 수창초교가, 서해리구는 화정초교가 우승을 차지했고, 한라리구만 서울 도곡초교에게 우승기를 내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4일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4회 KBO 총장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통틀어 우승을 차지한 광주학강초교 야구부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학강초등학교 제공

화순·효천고 2회전 진출

봉황대기 고교야구

화순고와 효천고가 제3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16강 진출을 놓고 대결한다. 화순고는 5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부경고와 1회전에서 8회 타진 최원경의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2-1 역전승을 이끌어냈다.

화순고는 7회까지 부경고 선발투수 박태정의 호투에 가로막혀 안타 1개를 때리는데 그쳤지만 0-1로 뒤진 8회 2사에서 최성락이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나간 뒤 신진호가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로 1.2루를 만들었고 최원경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승부를 뒤집었다.

효천고는 이어 열린 경기에서 경동고를 4-1로 눌렀다. 두 팀은 안타를 7개씩 기록했지만 효천고가 집중력에서 앞섰다.

효천고는 3회초 1사에서 공주현의 중전안타와 김항길, 채은성의 연속 볼넷으로 만루 찬스를 얻었고 4번타자 이재욱이 우익수를 넘는 2루타를 날려 주자 3명이 모두 홈을 밟았다. 효천고는 임현용의 우전안타로 4점짜리를 얻어 멀쩡히 달아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드디어 아론과 최다홈런 타이

샌디에이고전 2회 좌월 솔로포 터뜨려

7일 워싱턴과의 홈경기서 신기록 도전



‘마침내 기다리던 대망의 755호 홈런이 터졌다’ 미국프로야구 현역 최고의 거포 배리 본즈(43·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 홈런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다.

본즈는 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방문경기에서 0-1로 뒤진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우완 선발투수 클레이 헨슬리를 상대로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이로써 개인통산 755호 홈런을 기록한 본즈는 이 부문 최고기록 보유자였던 헵크 아론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86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2시즌 만에 이룬 대기록. 본즈는 이 기간 무려 7차례 리그 최우수 선수(MVP)로 뽑혔고 2001년에는 한 시즌 최다인 73개의 아치를 그렸다.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 복용설과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 시달리며 2005년 5개를 펜스 밖으로 넘기는 데 그쳤던 본즈는 지난 해 26개로 부활을 알렸다. 본즈는 지난 달 28일 플로리다 말린스전에서 754호 대포를 쏜 뒤 이후 6경기에서 홈런 없이 볼넷 6개 등 18타수 2안타에 그쳤으나 7경기 만에 시즌 21호 홈런포를 다시 가동하며 짜릿한 손맛을 봤다. 본즈는 한 차례 더 공을 펜스 밖으로 넘기면 아론을 넘어 신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전날 같은 팀과 경기에서 통산 340승 투수인 ‘컨트롤의 마법사’ 그레 매티스와 만나 4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본즈는 이날 좌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2회 첫 타석에서 선발 헨슬리와 만났다.

본즈는 조구 스트라이크를 흘려보내고 볼 2개를 골라 볼 카운트를 1-2로 유리하게 이끈 뒤 바깥쪽 스트라이크존에 걸치는 4구째를 통타, 755호 홈런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4회와 5회와 8회에는 상대 투수의 견제로 세 타석 연속 볼넷으로 출루했고 2-2로 맞선 8회 1사 1루에서 대주자 라자이 데이비스로 교체됐다. 본즈는 6일 샌디에이고전에는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7일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홈런을 앞세워 통산 756호 홈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본즈(좌타자)	비교	아론(우타자)
375	홈런기	385
380	방문경기	370
530	우투수	534
225	좌투수	221
8회(22년 통산)	40홈런 이상 시즌	8회(23년 통산)
73	한 시즌 최다 홈런	47
2회	홈런왕 타이틀	4회

역대 세계 홈런왕	
1위 배리 본즈	미국 755개
헵크 아론	미국 385개
3위 하이브 루스	미국 374개
4위 칼리 메이슨	미국 360개
5위 로빈슨 칸시노	미국 356개

최경주 대회 첫 톱 10 가능성

우승 상금 135만달러 WGC

3라운드 3오버파 공동 14위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우승 상금 135만 달러짜리 초특급 대회인 월드골프 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얼에서 ‘톱 10’ 입상을 바라보게 됐다.

최경주는 5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파이어스톤골프장(파70·7천455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69타를 쳤다.

중간합계 3오버파와 213타의 최경주는 공동 1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이 대회 첫 ‘톱 10’ 입상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혔다.

4위 그룹(1오버파와 211타)에 불과 2타차로 따라 붙은 최경주는 최종 라운드에서도 언더파 스코어를 낸다면 2002년 공동 19위를

뛰어넘는 최고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회에 8차례 출전해 다섯 번이나 우승컵을 차지한 타이거 우즈(미국)는 1언더파 69타를 치며 선두 로리 사바티니(남아공)에 1타 뒤진 2위(3언더파 207타)로 올라섰다.

1, 2라운드 연속 선두를 달렸던 사바티니는 이날 2오버파와 72타로 부진, 중간합계 4언더파 206타로 선두는 지켰지만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우즈에게 턱까지 추격당했다.

케니 페리(미국)가 우즈에 2타 뒤진 3위(1언더파 209타)를 달린 가운데 애런 배틀리(호주), 안드레스 로메로(아르헨티나), 스티브 에틀비(호주), 저스틴 레너드, 크리스티안 마르코, 헨리 메이헌, 스킷 버플랭크(이상 미국) 등이 공동4위 그룹을 이뤘다.

이븐과 70타로 선전한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공동30위(7오버파 217타)로 올라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지영 공동 3위 LPGA 브리티시여자오픈 3R

북해(北海)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닷바람도 메이저대회 왕관을 향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집념을 가로 막지 못했다.

세계랭킹 1위이지만 유독 메이저대회와 인연이 없었던 오초아는 5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골프링크스 올드코스(파73·6천638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 3라운드에서 이븐과 73타를 쳐 중간합계 6언더파 213타로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베스베리는 1언더파 72타를 쳐 전날 공동 19위에서 2위로 수직 상승했고 역시 1타를

줄인 마리아 요르트(스웨덴)도 공동29위에서 공동3위(1오버파 220타)로 뛰어 올랐다.

뚝심이 좋은 이지영(22·하이마트)과 박세리(30·CJ)도 거친 바람 속에서 타수를 지켜내며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이지영은 버디 1개와 보기 3개를 곁들여 2타만 잃어 요르트,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카린 이세레(프랑스) 등과 함께 공동 3위로 올라섰다.

박세리도 타수 손실을 2타로 막아내며 4오버파 77타를 친 지은희(21·캘러웨이)와 함께 공동7위(2오버파 222타)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애리조나 맨’ 김병현

9일 이적 후 첫 등판

4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유니폼을 다시 입은 김병현(28)이 9일 경기에 선발 출격해 복귀전을 치른다.

애리조나는 5일(한국시간)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전날 영입한 김병현이 9일 오전 10시 40분 애리조나주 파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2003년 5월 보스턴 레드삭스로 트레이드되기 전에 마무리에서 선발로 보직을 바꿔 출격한 이후 4년 4개월여 만이다.

한국여자축구 올림픽행 무산

표 지역에선 태극과 무승부

한국 여자축구의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

한국은 4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5차전 원정경기에서 홈팀 태국과 1-1로 비겼다.

한국은 1승2무2패(승점 5)가 돼 오는 12일 베트남과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각 조 1위에만 주어지는 올림픽 본선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다.